

주요기사 해설

2007-08-24

● 삼성중공업, 고수익 여객선 수주

지금까지 유럽 선박업체가 90.0% 이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여객선 시장에 삼성중공업이 뛰어 들었다. 삼성중공업은 23일 유럽 최대 여객선 운항선사인 스웨덴 스테나로부터 준크루즈급 고급 여객선 2척을 2,500억원에 수주했다. 조선부문 중에서도 크루즈선 부문은 척당 선가가 5억에서 10억 달러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상품이며 발주량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조선업계가 향후 유망사업으로 꼽고 있는 분야이다. 이로써 삼성중공업은 여객선 부문 진출이라는 긍정적 요인과 함께 매출액이 큰 폭 상승하게 되어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최근 미국 증시 안정세와 함께 시작된 추가 상승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금융사, 자본시장통합법 대비 몸집 불리기 한창

국내 금융사들이 2009년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에 대비해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SC제일은행이 한누리증권 인수전에 가세해 국민은행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금융은 한미캐피탈 인수를 추진중이고, 메리츠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의 증권사들도 최근 주식예탁증서 발행 및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금융사들의 규모 확장은 자본시장통합법에 대비함은 물론, 신규 투자 여력을 높여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금융주 가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 대한항공, 미국에서 집단소송 피소

대한항공이 화물운임 담합 혐의로 미국에서 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미국 탑승객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이는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최근 근접 감시용 무인항공기 개발, 미국 공군 전투기 성능개선 사업 수주,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으로 인한 미주노선 수익성 증가 가능성 등의 호재가 작용하여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